

골프지존 신지에·사진가 아빠 갤러리 열다

광주 동명동 혜음갤러리 개관
딸과 공동대표 맡은 신제섭씨

고향 작가들 공간 마련 결심
“책벌레 딸, 공간 이름붙여”
18일 개관전 구본창 등 참여

동명동이 광주 대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자 오래지 않은 문화공간들이 적을 점 이 늘 아수라다. 오래된 골목길에 사진·공예전문 갤러리가 문을 연다는 소식은 그래서 반가웠다. 장동 로터리 바로 옆 골목에 오픈한 ‘혜음 갤러리’는 수십년 된 한옥을 그대로 살린 공간으로 옛 정취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갤러리 대표는 올 2월 광주대 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한 신제섭씨다. “갤러리 운영, 그 중에서도 사진 갤러리는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데 큰 마음 먹었다” 했더니 “딸이 많이 도와줬다”는 답이 돌아왔다. 큰 딸인 프로골퍼 신지에 선수이기도 하다.

신 선수는 아빠와 함께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리며 갤러리 대표가 됐다. 아빠의 꿈을 응원하며 한옥 구입 등 갤러리 오픈에 힘을 보탠 그녀는 갤러리 이름 ‘혜음’도 직접 지었다. 평소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독서광인 신 선수는 “한옥갤러리에 맞는 한글 이름을 짓고 싶다”는 아빠의 말을 듣고 ‘생각’을 뜻하는 ‘혜음’을 이름으로 정했다.

현재 일본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는 신 선수는 최근 50세를 달성하며 한국 프로골프 역사를 새로 썼다. 함평골프고 출신으로 2006년 프로데뷔 후 ‘골프 지존’으로 불리며 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던 신 선수는 아빠의 오래된 모델이기도 했다.

대학 시절부터 취미로 사진을 찍었던 신 대표는 신 선수가 프로 리그에 뛰어들면서 딸의 모습을 수없이 촬영했다. 특히 미국 투어 3년 동안에는 모든 시합 사진과 쉬는 모습 등 신 선수의 생활을 영어에



오는 18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 골목길에 문을 여는 ‘혜음 갤러리’는 사진, 공예 전문 갤러리로 신지에 선수와 사진작가인 아버지 신제섭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날 열린 아버지 신제섭씨 사진전시회에서 포즈를 취한 신지에 선수.

담았고 아빠의 애정으로 찍은 사진은 어떤 사진보다 신 선수의 모습을 예쁘게 담아냈다.

“원래 LPG는 초상권 문제 등으로 사진 찍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전 딸의 모습을 남겨두고 싶어서 허락을 받았죠. 한국에서 뭘 때문인지 지에 사진이 좀 안 예쁘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 제공하기도 했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신 대표는 수도권 쪽에 갤러리를 오픈할까 생각했지만 “고향에 사진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주변의 권유로 동명동을 선택했다.

“사진작가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전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작가들을 발굴해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수익 사업보다는 문화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신 대표는 다큐 사진, 그중에서도 전 세계 소수 민족 사진을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있고 개인전도 몇 차례 열었다. 그 역시 초반에는 ‘보기 좋고 썩고 예쁜 사진’을 주로 찍었다. 우리의 60~70년대 모습처럼 사라져 가는 것, 잊혀져 가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다큐 사진에 몰두하게 됐다. 미안마 친족의 역사

이기도 한 여인들의 ‘문신’을 촬영하기 위해 수차례 미안마를 다녀왔고, 올해는 아동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방글라데시 등에 다녀왔다.

신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자라준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아이들 덕에 자녀 교육 강요도 많이 한다며 웃었다.

신 선수와 두살 터울로 학원 한번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둘째딸은 현재 서울대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아들 역시 현재 UC산타바바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다. NASA 주최 수학경시 대회에서 입상하고 조지아주의 수학·과학 영재에 뽑혔던 아들은 미국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제 교육 방침은 한마디로 방목이에요. 한국 교육의 문제는 아이들을 ‘분재’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목해야 재능이 보이거든요. 풀어놓으면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북면가원’에도 출연하고 음반도 3장이나 낸 지에가 노래를 참 잘해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기념으로 누나 음반에 참여하게 했는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하려나 했는데, 또 가만히 지켜보니 과학을 좋아하고, 물리학자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신 대표는 신 선수의 선수생활중 중학교 3학년 주니어 대회 첫 우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아픔을 견디고 5개월만에 거둔 성과였다. 또 LPG 정식 선수가 아닌, 초청 케이스로 참여한 대회에서 ‘골프여제’ 캐리웨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때도 떠올렸다. 당시 캐리웨는 담담히 경기에 임한 신 선수를 향해 “신프로는 100만달러가 얼마나 큰 줄 모르는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오는 18일부터 7월15일까지 열리는 개관전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사진작가 구본창을 비롯해 이정록·이창수 작가가 참여한다. ‘물, 생명을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물이 간직하고 있는 생명력에 대한 깊이있는 사유와 성찰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갤러리 문을 열게 도와 준 지애를 비롯해 이번 전시를 기획한 석재현씨 등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혜음갤러리가 사진하는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작가들의 기획전도 열어 사진 문화의 저변확대도 꾀하고 싶습니다.”

개막식에는 신지에 선수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062-232-696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北 경제 보상 전 PVID 완료돼야

불탄 “폐기된 핵무기 미국으로 옮겨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착수하기 이전에 PVID가 완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드시 PVID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은 탄도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고, 개방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폐기할 핵 시설과 핵 물질을 보관할 미국 내 장소까지 공개적으로 특정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핵 종말처리장으로 지목된 오크리지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된 리비아의 핵 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한 곳이다. 이는 북한과의 핵 협상도 ‘선(先)핵폐기-후(後)보상’ 원칙을 철저히 지킨 리비아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리비아가 핵 포기 후 체제 안전을 위협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리비아의 선(先)핵폐기를 거부해왔으며, 최근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거듭 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러한 북핵 폐기와 검증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아마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 IAEA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빨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남북 ‘핫라인’ 통화 시기 저울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핫라인(직통전화)’ 통화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외대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되면 이를 계기로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북미회담 시기와 장소가 발표된 후에도 이 들리지 않자 핫라인 가동 시점에 대한 주변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정외대 핵심 관계자 역시 11일 “조만

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14일에는 기자들을 만나 “실무에서는 접촉하고 있을 텐데, 언제 통화가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안에 할 가능성이 큰 것인가”, ‘함미정상회담 이전에는 통화가 이뤄지나’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핵심 관계자는 “모르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논의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시, 옐로카펫 6월까지 76곳 설치 완료

광주시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옐로카펫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대기공간(벽과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보행자는 횡단보도 대기선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고, 운전

자는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보행안전 시설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옐로카펫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56개소에 설치했으며, 효과 확산을 위해 올해 추가 설치를 추진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서 대기하는 비율은 24.4% 상승하고, 옐로카펫 설치지역 차량통과 시 아동인식율은 2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설치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지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담당자 현지조사 및 초등학교 관계자 협의를 통해 장원초교, 염주초교, 유안초교, 효동초교, 송정동초교 등 총 76개교를 선정했다. 지역별로

는 동구 6개교, 서구 23개교, 남구 4개교, 북구 5개교, 광산구 38개교 등이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옐로카펫 설치를 통해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개선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3년~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소당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심약번호 : 21719239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대지 14,916.9㎡, 건물 998㎡(HBM 구조)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매매가 30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텔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이하 급 모텔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